

勞 動 經 濟 論 集  
第26卷(3), 2003. 12, pp. 1~2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미국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 남성의 고용에 미친 영향: 1880~1940\*

이 철 희\*\*

본 논문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퇴직의 압력이 직종별로 어떻게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화 시기 미국 고령남성의 고용상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종에 따른 퇴직확률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지위와 근로조건이 우월한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확률이 더 낮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은퇴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의 상대적인 비율에 기초하여 측정된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숙련공, 조립공, 판매직 등의 직업군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과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발생한 직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노년기의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산업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고령 노동, 퇴직, 산업구조, 장기실업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다.

투고일: 2003년 8월 13일, 심사일: 9월 22일, 심사완료일: 12월 8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clee@proms.snu.ac.kr)

## I. 머리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20세기 초의 고령 노동자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동시대인들은 노동강도의 강화, 정규교육 이수율의 중요성 증가, 새로운 경영기법의 확산, 연령에 따른 차별의 강화 등으로 인해 고령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보다 쓸모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quier 1912; Epstein 1928). 예컨대 어느 혁신주의시대(Progressive Era)의 개혁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돌아가는 공장의 빠른 작업 속도가 노동자들을 지쳐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기계를 끊어내는 것처럼 사람들도 끊어 닦아버리게 한다. 젊고 기력이 있고 적응력이 있고 수족이 유연하고 정신이 기만한 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사업이나 전문직에서는 판단의 성숙도나 오랜 경험이 어느 정도까지 고령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이나 철도에서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 방적공들,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고령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sup>1)</sup>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관한 영향력 있는 이론인 ‘근대화 가설(modernization thesis)’에 따르면 인구 노령화는 노동시장에서 세대간의 경쟁을 야기했으며, 근대적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 동시에 기존 직업들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 결과, 노령 노동자들의 경험과 숙련은 낡은 것이 되어 버렸고 이는 노년층의 퇴직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2)</sup> 산업화를 경험하며 나타난 노년인구의 경제적 사정 악화는 20세기 초반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요구를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Armstrong 1932; Epstein 1938; Lubove 1968).

1) Edward Devine, *Misery and Its Causes*. Recited from Squire(1912: 35)

2) Cogwill(1974: 13). 이 가설에 따르면 도시화와 산업화는 고령인구의 퇴직 압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가족제도를 붕괴시킴으로써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행하던 권위와 역할을 박탈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수준의 개선으로 인해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지식의 유용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을 뒤받침하는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전통적인 노년 남성의 노동력참가율 추계는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19세기 말까지는 상당히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Durand 1948; Long 1958; Moen 1987a). 이는 이 시기를 통해 노인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된다. 둘째, 농민들은 비농업 부문의 피고용자들에 비해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정설이었다(Durand 1948, Long 1958; Bancroft 1987a). 이는 산업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축소가 노년인구의 노동력참가율 저하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노년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와 퇴직의 동기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20세기 초반 노년인구의 생활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노인들의 노동시장 지위는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산업화 충격에 의해 악화되지 않았다.<sup>3)</sup> 노인들의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은 전통적 시각의 주요 명제들에 배치되는 실증적인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로, Ransom and Sutch(1986)의 연구는 노령 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이 1935년의 사회보장법 제정 때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노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20세기 초 농민의 퇴직확률이 비농민의 퇴직률에 비해 낮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Moen 1994; Costa 1995a; Carter and Sutch 1996a). 이는 농업의 쇠퇴가 노령 남성의 노동시장 활동 감소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더 나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퇴직의 성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졌다. Gratton(1986)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고령

3) 근대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은 노년생활의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이 논쟁의 경제학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근대화 이론과 대립되는 다른 연구 결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많은 연구들이 노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산업화 자체가 아닌 독립적인 문화적·종교적·지적 기원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지적한다(Fischer 1977; Aschenbaum 1978; Haber 1983; Cole 1992). 가족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족구조와 가구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견해를 부정하였다(Chudacoff and Hareven 1978, 1979; Hareven 1979; Smith 1979).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은 유럽의 선진 공업국들보다 늦었는데 이는 높은 저축 수준, 생명보험이나 산업연금과 같은 기타 사적인 노후보장대책으로 인해 미국의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며 독립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시되었다(Weaver 1983; Ransom and Sutch 1987, 1993; Carter and Sutch 1996a).

남성의 비교적 낮은 노동력참가율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짧은 여가와 많은 소득 대신 긴 여가와 다소 낮은 소득을 선호한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ratton(1996)은 노령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며, 노년의 가장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을 보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Carter and Sutch(1996a)는 20세기 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 노후를 대비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퇴직 행태가 현대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업화 시기 노년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위에서 살펴본 문헌에 공헌하는 것이다. 노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문헌이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수량적인 증거는 여전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 필자는 노동력 참가와 장기실업이라는 두 가지 노동시장 지표에 근거하여 노년 남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퇴직의 압력이 직업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러한 직업별 차이의 양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sup>4)</sup>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퇴직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주로 의존했던 직업간 퇴직확률(hazard of retirement)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기존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보다 긴 기간을 연구 대상으로 잡았고, 보다 세분화한 직업분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제III장에서 필자는 고령화가 가져온 고용상의 불리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상대적인 장기실업비율을 이용하여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의 부문별 차이를 분석한다. 필자는 또한 고령화의 불리함이 컸던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가 퇴직할 가능성이 더 높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산업화가 노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에 미친 영향에 관해 본 논문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마지막 장은 본 논문을 요약한다.

4)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 임금은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연구 대상 기간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미시자료는 단지 제조업이나 농업노동자와 같은 소수 직종에 대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논문에서는 임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 II. 직업에 따른 퇴직확률의 차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기 초의 노령인구의 노동력 참가와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직업에 따른 퇴직확률의 차이이다.<sup>5)</sup>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전통적인 믿음과 달리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수정주의 시각의 가장 강력한 실증적 기초는 1900~10년 사이 농민의 퇴직률이 비농민의 퇴직률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sup>6)</sup> 그러나 농민의 퇴직률이 비농민 인구의 퇴직률보다

5) 또 다른 수정주의 가설의 핵심은 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1870~1937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이는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Lee, 1998). 고령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주로 노동력 참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Moen, 1987b; Ransom and Sutch 1986, 1989; Margo, 1993; Carter and Sutch, 1996b). 1940년 이전의 센서스에서 노동력 참가자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직업이 없는 사람, 직업이 은퇴자'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비직업적 직함을 기록한 사람들을 노동력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Ransom and Sutch(1986)는 센서스 기간 중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유업자(gainfully employed)의 일부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한 사람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로 Moen(1987b)과 Margo(1993)는 장기실업자를 참여자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Lee(1998)는 고령의 퇴역 군인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00~10년간의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의 패턴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기실업은 그 행태가 비참가자보다는 고용노동자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노동력 참가자로부터 실제로는 퇴직자일 수도 있는 장기실업자의 최대 추정치를 제외한다고 해도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참가율은 1880~1940년 동안 분명한 감소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19세기 말 이후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6) Carter and Sutch(1996a: 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퇴직은 작업의 속도와 고용으로부터의 이탈시 기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영업자들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자영업자들은 퇴직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더 부유했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일찍 노동시장을 떠났다는 것은 이 시기 퇴직이 강제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Carter와 Sutch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내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퇴직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사망 전에 퇴직한 사람들의 55세 때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자영농민이 25.2%, 비농업부문의 자영업자가 21.4%, 피고용자가 19.8%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1900년의 고용상 지위가 직업에 기초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정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각각의 퇴직률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Carter와 Sutch가 제시한 결론은 상당 부분 1900~10년 사이 농민이 비농민에 비해 퇴직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낮지 않았다는 결과는 단지 20세기의 첫 10년 동안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Lee (2002)의 최근 연구는 1880~1940년까지 6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농민-비농민 간 퇴직 확률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전통설의 주장대로 농민이 비농민보다 일반적으로 퇴직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이용했던 기간인 1900~10년 사이에만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1900~10년 사이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이 기간 동안 나타난 급격한 농업자산 가격의 상승과 그것이 유발한 농민의 조기퇴직에 의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sup>8)</sup> 농민들은 경제적 지위상의 우위와 농업의 신축성으로 인해 비농민에 비해 보다 은퇴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더 컸을 것이다.<sup>9)</sup> 따라서 농민의 은퇴연령이 비농민보다 늦었다는 사실은 비농민의 퇴직시기 결정이 완전히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비농민이 퇴직시기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경우, 이들은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 보다 더 늦게 퇴직함으로써 보다 높은 소득을 선택하였을 것이다.<sup>10)</sup>

샘이다.

- 7) Lee(2002)는 1820년 이래로 농업의 상대적 쇠퇴가 없었을 경우 고령 노동자의 가상적인 노동시장참가율을 계산하였다. 이 결과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감소가 1880~1940년 동안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노동력참가율 감소의 20% 이상을 설명함을 보여준다.
- 8) 고정달러 가치로 환산된 미국의 에이커당 농장 시가는 1900~10년 동안 두 배로 상승하였다(Lindert, 1988).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농민들의 퇴직은 그들의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힘입었을 것이다. Lee(1999)는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각 군(county)의 평균 농장 가격이 해당군에 거주하던 농장 소유주의 퇴직확률에 강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1900~10년 동안 평균 농장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군에 거주했던 농장 소유주들은 농장 가격의 상승이 미미했던 군의 거주자들에 비해 1910년까지 퇴직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 비농민의 퇴직행태는 농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 9) 농업 자체의 신축성 덕분에 농장 소유자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우에만 은퇴를 할 수 있었다면, 퇴직한 농장 소유자는 비농민에 비해 부유했을 것이다. 재산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은퇴 후 농장 소유자는 비농민에 비해 더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퇴한 농장 소유자는 비농민에 비해 주택을 소유한 가장의 비율이 더 높았다. 농촌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곤란의 징후인 세를 놓는 행위(Modell and Hareven, 1973)는 은퇴한 농장 소유자의 경우 비농민에 비해 적었다. 많은 연구들은 산업화 시대, 특히 도시 지역 노인의 경제적 곤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19세기의 도시화에 의한 핵가족화 및 부의 감소는 종종 식민지 시대 이후의 노인 권위 축소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용되어 왔다(Haber, 1983; Haber and Gratton, 1994). 생계 능력을 상실한 도시 지역의 소수 노년층은 구빈원으로 보내지기도 했다(Squire, 1912). 노동계급에서 부모가 고령인 경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종종 자녀들이 일찍부터 노동을 하도록 강제되기도 하였다(Goldin, 1981).
- 10) 오늘날 노동시장 경직성이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Hurd (1996)를 참조하라. 이러한 경직성의 원인으로서는 고용에 있어서의 고정비용, 팀 생산방식,

위에 제시된 농민과 비농민 간의 퇴직패턴의 비교는 퇴직의 성격에 대해 제한된 결론을 제공할 뿐이다. 1900년경 비농민은 50세 이상 남성 인구의 거의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농민 가운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노령 노동자들은 매우 상이한 경제적 지위, 직업특성, 고용조건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퇴직시기를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직업을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1900~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다음의 8개 직종에 대해 퇴직 확률을 비교하였다: ① 자영농민, ② 법률가, 의사, 상인 등의 전문직 및 고위 자영업 종사자, ③ 점원, 판매원, 계리사 등의 사무직 및 하위 자영업자, ④ 숙련공, ⑤ 조립공 및 반숙련노동자, ⑥ 미숙련노동자, ⑦ 농업노동자, ⑧ 미분류 직종.<sup>11)</sup>

이하의 실증분석은 1900년 당시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1900년과 1910년 센서스에 모두 연결된 3,100명의 퇴역군인에 관한 패널자료에 기초하였다.<sup>12)</sup> 퇴직의 결정은 직업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자는 근로소득, 비근로

업무 특화, 사회보장 및 연금 수혜의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 11) 이 분석에서 1910년 센서스 원사료의 직업난이 공백으로 남아 있거나 ‘은퇴, 장애인’ 등과 같이 직업과 관련이 없는 표현 혹은 ‘연금생활자, 정신이상, 자본가, 지주’ 등으로 기재된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 12) 이 고령 남성에 대한 장기패널자료 표본은 Early Indicators of Later Work Level, Disease and Wealth라는 연구과제의 일부로 수집·연결되었다. 이 연구가 이용한 주된 표본은 남북 전쟁 당시 북군(Union Army)에 입대한 35,747명의 백인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얻어진 이들의 일생에 걸친 군복무, 사회경제적 지위, 의료적 경험에 대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자료의 출처는 병적기록, 의료기록, 연금관련 기록, 1850년, 1860년, 1900년, 1910년의 연방 인구센서스 원사료(manuscript schedules of census), 퇴역군인연금 수혜를 위한 의료검진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Fogel(1993)을 참조하라. 현재까지의 자료연결작업은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욕, 오키오, 펜실바니아,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소재 부대에 입대한 28,526명(전체 표본의 약 80%)에 대해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는 이 표본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결정적인 노년기 직업에 관한 정보는 센서스 원사료로부터 수집되었으므로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1900년 센서스에 성공적으로 연결된 퇴역군인들에 한정되었다. 1900년 센서스가 조사되었던 1900년 4월 현재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10,456명 가운데 8,891명이 1900년 센서스에서 발견되며, 이 가운데 8,817명이 50세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3,010명(34%)은 1910년까지 사망했으며 1,180명(13%)은 1910년 센서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모두 4,624명의 참전병사가 1900년과 1910년 센서스에 모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여러 가지 자료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표본선택상의 편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료연결실패(linkage failure)는 대부분 무작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Viechnicki(2002)를 참조하라.

소득, 재산소유 정도, 가족구조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여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sup>13)</sup>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연령, 출생지, 주택소유 여부, 하인이나 하숙인 존재 여부, 혼인 여부, 문자해독능력, 거주지, 군인연금 수혜액 등을 포함시켰다. '연금'으로 표시된 더미변수는 해당 퇴역군인이 1900년에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sup>14)</sup> 피부양자의 존재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세대주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부양인의 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하였다. 건강을 나타내는 지수인 신체충실지수(Body Mass Index: BMI) 더미변수도 첨가하였다.<sup>15)</sup>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 거주 여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를 첨가하였다.<sup>16)</sup>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비농민의 경우, 직업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인 퇴직확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통제그룹인 농민과 비교할 때 미숙련노동자, 농업노동자 및 미분류 직종의 노동자의 퇴직확률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위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와 숙련공의 퇴직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 사무직 및 자영업과 조립공 및 반숙련노동자의 퇴직확률은 농민의 퇴직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sup>17)</sup> 앞에서 지적한

- 
- 13) 북군 참전병사들의 표본을 이용한 유사한 회귀분석이 이미 Costa(1995a, 1995b)와 Lee (1998, 1999)를 포함한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이용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표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직업군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 14) 북군 퇴역군인 연금의 역사, 연금신청 과정, 연금액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Costa(1998)와 Glasson(1918)을 참조하라.
- 15) 신체충실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심하게 비만이거나 야윈 사람의 경우 상대적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osta, 1993a; Waaler, 1984).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적 사망위험은 신체충실지수 20-28구간에서 안정적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필자는 회귀분석에서 신체충실지수가 20 미만, 28 이상인 경우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 16) 도시 지역은 1900년 당시 IPUMS(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에서 대도시(Metropolitan) 지역으로 분류된 군(county)들을 포함한다. 포함된 군들과 대도시 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Ruggles and Sobek(1998)을 참조하라.
- 17) 지역에 따라 직업간 퇴직행태의 차이가 달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지역 각각에 대해 유사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남부와 서부(각각 147, 96)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석의 결과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역별 차이를 보여준다. 뉴잉글랜드와 중부대서양 연안에서는 전문직 및 관리직과 숙련공의 퇴직률이 농민의 퇴직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동부와 서중북부에서는 미숙련공과 농업노동자의 퇴직확률이 농민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네 지역의 상이한 패턴은 전체 표본에 기초한 결과에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중서



〈표 1〉 로짓 회귀분석 결과: 1900년과 1910년 사이 퇴직할 확률의 결정요인  
(종속변수는 1910년 퇴직상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종속변수 평균=0.389)

설명변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P값	Odds Ratio
절편			-0.632	0.008***	
자영농민	0.396	0.489	NI	NI	NI
전문직/자산소유사업	0.066	0.249	-0.426	0.017**	0.653
사무직	0.145	0.352	0.176	0.157	1.193
숙련공	0.145	0.352	-0.302	0.021**	0.740
조립공	0.058	0.235	0.136	0.454	1.145
미숙련노동자	0.129	0.335	0.235	0.078*	1.265
농업노동자	0.031	0.175	0.440	0.062*	1.552
미분류	0.026	0.160	0.668	0.007***	1.951
50~54세	0.196	0.397	NI	NI	NI
55~59세	0.430	0.495	0.469	0.000***	1.599
60~64세	0.238	0.425	1.003	0.000***	2.726
65세 이상	0.134	0.341	1.550	0.000***	4.710
미국 출생자	0.875	0.330	-0.171	0.158	0.843
주택소유자	0.450	0.497	0.004	0.965	1.004
저당주택소유자	0.204	0.403	-0.056	0.635	0.945
하인 거주	0.060	0.238	-0.212	0.224	0.809
하숙인 거주	0.108	0.310	0.222	0.090*	1.248
피부양자 1~3명	0.678	0.467	-0.485	0.006***	0.616
피부양자 4명이상	0.230	0.420	-0.776	0.000***	0.460
기혼	0.875	0.329	-0.085	0.566	0.919
문맹	0.034	0.181	0.060	0.782	1.061
뉴잉글랜드	0.107	0.309	-0.386	0.006***	0.680
중부대서양	0.250	0.433	-0.281	0.006***	0.755
동부 중서부	0.416	0.492	NI	NI	NI
서부 중서부	0.145	0.352	0.085	0.473	1.089
남부	0.047	0.212	0.177	0.346	1.194
서부	0.030	0.172	0.007	0.976	1.007
도시 지역	0.189	0.392	0.103	0.362	0.903
6개월 이상 실업	0.096	0.294	0.484	0.000***	1.622
연금수혜더미	0.791	0.405	-0.617	0.013**	0.539
연금액 로그값	1.782	1.000	0.428	0.000***	1.535
낮은 BMI	0.081	0.273	0.225	0.114	1.252
중간 BMI	0.645	0.479	NI	NI	NI
높은 BMI	0.036	0.186	0.296	0.160	1.344
BMI 미확인	0.239	0.426	-0.237	0.022**	0.789
관측수			3100		
-2 Log L without covariates:			4142.6		
-2 Log L with covariates:			3784.9		
Chi-square for covariates:			357.8 (P=0.0001)		

주: 자료의 출처는 1900년과 1910년 인구센서스에 연결되었으며, 1900년에 50세 이상이었던 3,100명의 복군 퇴역군인들의 표본임. 유의수준: \*(10%), \*\*(5%), \*\*\*(10%).

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 및 관리직과 숙련공의 낮은 퇴직확률과 동부에서 두드러진 미숙련공과 농업노동자의 높은 퇴직확률이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대로 농민의 퇴직은 연구 대상 기간 중의 농지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받았을 것이므로, 더 긴 기간을 고려한다면 농민의 퇴직확률은 사무직보다 고위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퇴직확률과 더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석에 이용된 직종들은 퇴직확률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농민, 고위 전문직 및 자영업, 숙련공(이상 낮은 퇴직확률), ② 하위 사무직(중간 정도의 퇴직확률), ③ 미숙련노동자 및 농업노동자(높은 퇴직확률). 이와 같은 퇴직확률의 직업별 차이는 작업조건과 경제적 지위 면에서 더 우월한 직업을 가진 고령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퇴직확률이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퇴직결정에 있어서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부유한 자영업자의 퇴직확률이 임노동자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고소득 직종 종사자는 하위 직종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저축을 했을 것이므로 퇴직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더 유리했을 것이고, 이는 상위 직종 종사자의 퇴직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작업환경, 노동강도, 노동의 신축성 등의 근로조건은 하위 직종에 비해 상위 직종에 더 유리했을 것이고, 이는 상위 직종 종사자의 상대적인 퇴직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본 장의 결과는 20세기 초 퇴직시기의 결정에 있어서 고용 기회와 직업특성의 영향이 퇴직소득의 영향을 압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sup>18)</sup>

### Ⅲ. 장기실업자 비율의 산업별 차이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장기실업은 20세기 초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지적된다.<sup>19)</sup> Keyssar (1986: 90~96)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들은 청·장년층보다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성을 낮았지만 일단 해고를 당하게 되면 새 직업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Margo(1993)

18) 우월한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퇴직기회비용보다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왜 좋은 직장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퇴직을 꺼리는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본 연구에 있어서 장기실업은 센서스 조사 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정의된다.

의 연구도 고령남성들에게 있어서 장기실업발생빈도가 높았던 것은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는 확률이 연령에 따라 낮아진 데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년의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직면했던 불리함은 동시대인들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Slichter (1917, p.15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노령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이다. 40 혹은 50세가 넘은 반숙련노동자는 일단 실직하게 되면 과거의 것만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득의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년 노동자들의 신규고용기회를 제약한 요인으로는 기력과 건강의 쇠퇴, 낮은 기술이나 지식, 젊은 세대에 비해 부족한 교육 등을 들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 제한 등과 같이 명시적이거나 혹은 보다 비공식적인 고령자 차별도 노년 노동자들의 구직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인사정책은 그 이전의 사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단절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강화했다는 지적도 있다(Lauck and Sydenstricker 1917: 130~131, 163).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은 1920년대의 산업연금(Industrial Pensions)의 도입이 마침내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령의 피고용자들을 필요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보았다(Graebner, 1980).

20세기 초 노년 노동자의 실업 양상을 1900년과 1910년 센서스 PUMS 자료를 이용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표 2>는 1900년과 1910년의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의 비율을 3개 연령집단 및 27개의 직업 범주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sup>21)</sup> 1900년

20) 건강의 악화는 모든 연령의 노동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실직의 원인이었다. 연방노동국(Federal Bureau of Labor)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된 임금소득 가구원들의 실직일수의 약 23%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었다(Lauck and Sydenstricker, 1917: 113). 그러나 이는 특히 고령 노동자에게 있어 더 중요한 문제였다. 19세기 말의 산업노동자들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Ransom과 Sutch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해 상실한 노동일수는 55세를 고비로 급격히 증가했다(Ransom and Sutch, 1995). 교육의 부족에서 비롯된 고령 노동자들의 불리함은 주로 사무직이나 판매직에서 발견된다. Gratton에 따르면 1900년경 보스턴의 점원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국내 출생자로 억양이 섞이지 않은 영어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Gratton, 1986: 79).

21) 여기에 제시된 분류는 IPUMS의 직업코드에 따른 것이다. 10개의 기본적인 직업군은 다시 더욱 세분화한 직업코드나 지역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종들만을 별개의 직업군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표 2〉 1900년과 1910년 센서스년도에 대한 직업 및 연령별 장기실업 경험자 비율(%)

직업분류	1900			1910		
	15~24	25~44	55세 이상	15~24	25~44	55세 이상
전체	5.0 (1.56)	3.2 (1.00)	8.1 (2.53)	2.3 (1.44)	1.6 (1.00)	2.8 (1.75)
전문직/자산소유사업	10.6 (3.31)	3.2 (1.00)	3.3 (1.03)	2.5 (3.57)	0.7 (1.00)	1.4 (2.00)
농민						
동북부	0.0 (0.00)	0.3 (1.00)	4.1(13.67)	0.0 (0.00)	0.1 (1.00)	0.0 (0.00)
중서부	0.0 (0.00)	0.7 (1.00)	2.8 (4.00)	0.0 (0.00)	0.1 (1.00)	0.0 (0.00)
남부	1.1 (0.92)	1.2 (1.00)	1.9 (1.58)	0.0 (0.00)	0.1 (1.00)	0.1 (1.00)
서부	0.0 (0.00)	1.1 (1.00)	1.5 (1.36)	0.0 (0.00)	0.1 (1.00)	0.0 (0.00)
관리직	0.8 (1.00)	0.8 (1.00)	1.5 (1.88)	1.1 (2.75)	0.4 (1.00)	0.9 (2.25)
사무직	2.6 (1.18)	2.2 (1.00)	6.1 (2.77)	2.8 (2.33)	1.2 (1.00)	1.7 (1.42)
판매직	4.2 (0.88)	4.8 (1.00)	20.8 (4.33)	2.8 (1.22)	2.3 (1.00)	6.5 (2.83)
숙련공						
건설	6.7 (0.88)	7.6 (1.00)	27.5 (3.62)	3.9 (1.50)	2.6 (1.00)	7.9 (3.04)
금속	3.3 (1.18)	2.8 (1.00)	18.2 (6.50)	3.8 (1.41)	2.7 (1.00)	7.2 (2.67)
기계	3.4 (1.17)	2.9 (1.00)	13.3 (4.59)	2.4 (1.09)	2.2 (1.00)	4.9 (2.23)
제화	4.8 (3.43)	1.4 (1.00)	15.2(10.86)	2.2 (1.47)	1.5 (1.00)	1.4 (0.93)
기타	3.2 (0.76)	4.2 (1.00)	14.1 (3.36)	1.8 (0.90)	2.0 (1.00)	6.0 (3.00)
조립공						
직물	2.5 (0.28)	9.0 (1.00)	33.3 (3.70)	3.6 (1.20)	3.0 (1.00)	6.5 (2.17)
운송	3.7 (1.95)	1.9 (1.00)	12.3 (6.47)	2.8 (2.00)	1.4 (1.00)	5.6 (4.00)
금속 및 광업	10.0 (1.30)	7.7 (1.00)	14.5 (1.88)	4.3 (1.10)	3.9 (1.00)	10.0 (2.56)
기타	4.3 (1.79)	2.4 (1.00)	9.8 (4.08)	3.3 (1.27)	2.6 (1.00)	4.0 (1.54)
서비스						
가내 서비스	8.1 (2.45)	3.3 (1.00)	0.0 (0.00)	1.7 (0.85)	2.0 (1.00)	6.7 (3.35)
기타 서비스	2.9 (1.26)	2.3 (1.00)	3.4 (1.48)	2.0 (1.05)	1.9 (1.00)	4.0 (2.11)
농업노동자						
동북부	3.3 (0.79)	4.2 (1.00)	14.3 (3.40)	1.8 (0.95)	1.9 (1.00)	5.1 (2.68)
중서부	4.5 (1.10)	4.1 (1.00)	4.8 (1.17)	0.9 (0.75)	1.2 (1.00)	5.5 (4.58)
남부	4.2 (1.20)	3.5 (1.00)	8.8 (2.51)	0.7 (0.88)	0.8 (1.00)	1.1 (1.38)
서부	5.2 (0.91)	5.7 (1.00)	5.3 (0.93)	2.4 (1.26)	1.9 (1.00)	7.0 (3.68)
미숙련노동자						
동북부	9.2 (1.53)	6.0 (1.00)	16.0 (2.67)	6.6 (1.27)	5.2 (1.00)	9.5 (1.83)
중서부	12.4 (1.46)	8.5 (1.00)	25.8 (3.04)	4.1 (1.28)	3.2 (1.00)	6.7 (2.09)
남부	7.1 (1.78)	4.0 (1.00)	16.5 (4.13)	2.3 (1.44)	1.6 (1.00)	4.5 (2.81)
서부	11.5 (1.77)	6.5 (1.00)	14.8 (2.28)	5.8 (1.32)	4.4 (1.00)	7.0 (1.59)

주: 1900년과 1910년 센서스의 마이크로 표본으로부터 계산하였음. 괄호 안에는 각 연령대의 남성 장기실업자 비율을 25~44세 남성의 장기실업자 비율로 나눈 비율이 제시되어 있음.

위의 직업들은 모두 '기타' 직업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작은 표본으로 인한 측정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 경우를 보면 15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 가운데 약 20%가 실업을 경험했고 그들의 평균 실업 월수는 4개월이 넘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들도 4.5%에 달했다. 5개월 이하의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있어서는 55세 이상의 고령 남성들이 25~44세의 청장년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으나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은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높았다. 1900년에는 고령자들의 장기실업자 비율(이를 이하에는 LU55로 표기한다)은 청장년층의 장기실업자 비율(이를 LU25로 표기한다)에 비해 2.5배나 더 높았다. 이러한 두 연령층간의 차이는 1910년까지 상당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1.8배에 달하였다.<sup>22)</sup> 이렇게 고령 노동자들의 장기실업 위험성이 청장년층에 비해 높았던 것은 이들이 실업률이 높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령자들은 청장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직업분포가 두 연령층에 대해 동일했다면 LU55와 LU25의 비율은 1900년에 3.84, 1910년에는 2.81로 실제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sup>23)</sup>

많은 문헌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장기실업의 원인으로 노동수요의 계절성을 들고 있다. 농업, 해상 및 하천운송업, 건설업, 일부 제조업 종사자들의 고용은 기후나 수력의 공급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식품, 섬유, 제화 산업의 경우에는 원료 공급이나 제품 수요의 계절적 변화에 의해 노동수요의 변동이 초래되기도 했다.<sup>24)</sup> 그러

22) 1900~10년 동안 관찰된 LU55/LU25의 하락은 실업에 대한 정의가 변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 1880~1900년의 센서스 조사지침은 조사원들로 하여금 모든 조사 대상자들의 실업 월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사원은 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무직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1910년의 센서스 조사지침은 자영업자나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에 한해 그들이 일하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주의 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10년의 실업기간 측정은 비자발적 실업만을 포함하는 데 반해, 1900년의 실업기간 산정은 자발적 실업도 포함되어 있다.

23) 55세 이상 남성의 직업 구성이 25~44세 남성의 직업 구성과 동일했을 경우의 가상적인 LU55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LU55^* = \sum_j w_j^{55} LU55_j$$

여기서  $w_j^{55}$ 와  $LU55_j$ 는 각각  $j$ 군 직종에 종사하는 25~44세 남성의 비율과  $j$ 군 직종에 속하는 LU55의 비율을 의미한다.

24) 생산활동이 날씨, 수력에너지, 기타 계절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의 예로서 농업, 대양운송, 건설, 금속제조 등을 들 수 있다. 식품, 섬유, 신발업 등의 경우, 노동수요의 계절성은 완제품 수요나 원자재 공급의 계절적 변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노동수요의 계절성 유형에 대한 논의는 Lauck and Sydenstricker(1917: 137~152), Kuznets(1933), Lebergott(1964: 168~172), Engerman and Goldin(1994: 111~116)을 참조하라.

므로 어떤 산업의 노년 노동자들 가운데의 장기실업자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산업에서 노령화가 가져오는 불리함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산업의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태가 나빴음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절성의 정도와 같이 모든 연령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별 노동수요 상태를 통제한 후, 산업간 노년 노동자의 장기실업자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만약 일반적인 노동시장 상태의 영향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지닌 노년 노동자의 장기실업자 위험이 높았다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청장년 노동자들도 높은 장기실업의 위험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을 직업간에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청장년 노동자들에 비교한 노년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장기실업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LU55와 LU25의 비율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각 연령집단의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25~44세 남성들의 장기실업자 비율로 나는 값이 <표 2>의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노령화가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하락이 특히 숙련공 및 반숙련공들에게 있어서 심각했음을 시사한다. LU55와 LU25의 비율은 특히 제화, 금속 산업의 숙련공들과 기계공들, 그리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직공들에게 있어서 높았다. 그리고 고령의 판매원들도 젊은이들에 비해 장기실업을 경험할 위험성이 훨씬 높았다. 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상대적인 불리함은 농민, 전문직 종사자, 관리자 및 재산운영인, 서비스 직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있어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00년과 1910년 모두에 유사하게 나타난다.<sup>25)</sup>

위에서 고령자들의 상대적인 장기실업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드러난 직업들은 대체로 기존의 문헌들이 산업화에 의해 고령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제시한 바 있는 직업들과 부합한다. 인쇄공업에 관한 Graebner의 연구는 20세기 초 새로운 인쇄기계가 도입된 후 나타난 노동강도 및 작업속도의 증가가 고령의 인쇄공들을 이 산업으로부터 밀어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사례연구는 20세기 초 고령의 판매원들

25)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1900년 북동부 농민의 LU55/LU25는 대단히 높았으며, 1900년 중서부 농민과 1910년의 전문직 및 관리자의 LU55/LU25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조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LU5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직종의 경우에는 LU25가 대단히 낮아서 고령화에 따른 불이익이 심각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환경이 이례적으로 좋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직면한 고용상의 불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00년과 1930년 사이 40세 이상의 판매원들은 그들의 직업 성격과 자격 요건의 변화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었다. 비판자들은 고령의 판매원들이 근대적인 기업의 경영방법이나 변화하는 경제적·기술적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Graebner, 1980: 45~46). 철도를 비롯한 운송산업의 기능직들은 20세기 초의 동시대인들에게 있어 고령 노동자들이 가장 버티기 어려운 작업 여건을 지닌 직종으로 인식되었다.<sup>26)</sup> 요컨대 위에서 살펴본 장기실업의 형태는 산업 부문에서 작업 속도의 증가나 생산 및 경영기술의 변화가 컸던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에게 노령화가 고용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장기실업이라는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노년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하락은 많은 경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영구적인 퇴출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 장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노년의 장기실업자들은 다른 취업자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퇴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는 노년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이 큰 직종에서 노년 노동자들의 이직 및 퇴직이 컸는지를 보기 위해 1900년 현재의 앞에서 살펴본 각 직종의 상대적인 장기실업자 비중(LU55 /LU25)이 1900년과 1910년 사이 노년 노동자의 비율에 미친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이 분석에서 노년 노동자의 상대적인 이직 및 퇴직의 정도를 보여주는 종속변수로는 다음의 두 가지 지표를 이용했다. 첫째는 전체 55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어떤 특정 직종의 노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PROP55)의 변화율(CPROP55로 표기함)이고, 둘째는 어떤 직종의 55세 이상 남성 노동자의 수를 동일 직종의 25~44세의 장년 노동자의 수로 나눈 비율(REL55)의 변화율(CREL55)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어떤 직종에서 노년 노동자의 퇴출이 두드러질 경우 이 직종에 있어서의 PROP55와 REL55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지표는 노년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전반적인 상황, 예컨대 각 직종의 노동수요의 성장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면 그 직종에서의 노년 및 청장년의 고용은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노년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26) 예컨대 동시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운송업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인간을 큰 위험에 두거나 더 빨리 인간을 폐쇄화시키는 직업은 없다. 이는 특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열차나 선박을 운행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로서, 그들은 밤낮으로 철저히 작업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Squier, 1912: 109).”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 직종의 REL55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직종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노년 노동자보다 젊은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 직종의 PROP55는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 직종의 전반적인 노동수요의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로 25~44세 노동력 가운데 어떤 직종의 피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PROP25)의 변화율(CPROP25)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불완전하게나마 소득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각 직종의 평균 소득의 로그값(INCOME)을 추가하였다.<sup>27)</sup> 회귀분석에는 농민들을 제외한 23개 직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표 3>은 몇 가지 상이한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1900년 현재 노년 노동자들의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청장년층에 비해 높았던 직종에서 상대적인 노년 노동자의 감소가 컸음을 보여준다. CPROP25와 INCOME을 통제했을 때 LU55/LU25 한 단위 증가는 PROP55와 REL55를 각각 5%씩

<표 3> 회귀분석 결과: 상대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노년 노동자 비중변화에 비친 영향

변수	종속변수= CPROP55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절편	9.330	0.005	0.269	0.044	0.046	0.013
U55/U25	-0.070	0.013	-0.058	0.067	-0.051	0.095
CPROP25			0.250	0.390	0.188	0.499
INCOME					-0.010	0.119
	결정계수: 0.259 F값: 7.354 (p=0.013)		결정계수: 0.287 F값: 4.023 (p=0.040)		결정계수: 0.375 F값: 3.793 (p=0.028)	
변수	종속변수= CREL55					
	(4)		(5)		(6)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절편	0.147	0.272	0.321	0.035	0.592	0.004
U55/U25	-0.025	0.440	-0.062	0.081	-0.052	0.113
CPROP25			-0.714	0.036	-0.797	0.014
INCOME					-0.014	0.047
	결정계수: 0.029 F값: 0.621 (p=0.440)		결정계수: 0.224 F값: 2.888 (p=0.079)		결정계수: 0.373 F값: 3.769 (p=0.081)	

주: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값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음. 변수의 정의에 관해서는 본문을 참조.

27) 이 변수는 원래의 센서스 자료에 제시된 것이 아니고 IPUMS의 제작 과정에서 첨가된 변수이다. 참고로 1940년 이전의 센서스는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CPROP55가 종속변수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LU55/LU25의 영향은 세 가지 모형 모두 10% 수준에서 유의했다. 반면 CREL55가 종속변수로 이용된 경우에는 CPROP25가 포함된 모형(모형 5)에 대해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얻을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기대했던 대로 CPROP25의 증가는 PROP55의 감소를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직종이 확대될 때 그 직종의 피고용자 중 노년층의 비중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역시 앞에서 예상했던 대로 CREL55는 CPROP2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어떤 직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그 직종에 고용된 노년 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20세기 초 장기실업의 상대적 발생빈도로 측정된 고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은 기능공, 직공, 판매원 등의 직업에서 컸다. 반면 고령의 농민, 전문직, 관리자, 자영업자들은 여타 직종의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사정이 나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00년에 고령화의 불리함이 컸던 직종에 취업한 고령 남성들은 퇴직 혹은 이직할 가능성이 더 컸다.

#### IV. 산업화와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위에 제시된 결과는 산업화 기간 중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퇴출압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장기실업의 상대적 발생빈도로 측정된 고령자 노동시장 지위의 직종별 차이를 고려하면 고령 노동자들이 겪은 고용상의 불리함은 상대적으로 판매원, 숙련공, 조립공 등의 직업에서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종들을 이하에서 '불리한 직종'이라고 칭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문직, 농민, 관리자, 자산소유사업가 등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사정이 기타 직종에 비교할 때 나았던 것으로 보인다(이하에서 '유리한 직종'으로 칭한다).<sup>28)</sup>

첫 번째 질문은 상기의 두 직업군에 고용된 노동력의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28) Epstein(1928)은 1920년 센서스에 기초하여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 따르면 “센서스 자료를 직종별로 살펴본 결과 농업, 전문직, 독립자영업, 공무원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는 여전히 직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모든 주요 산업부문 직종에서는 고령자들이 사실상 퇴출되어버린 상태이다(p. 21).”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표 4>에는 1880~1940년 기간 동안 50~59세 남성 노동자들의 직업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50대 남성 노동자들만을 고려한 것은 직업에 따라 상이한 퇴직확률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고령화로 인한 불이익이 큰 직종에 종사하는 노령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직종 종사자에 비해 더 일찍 퇴직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려하는 경우 불리한 직종의 상대적 크기는 과소 평가될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영구적으로 퇴직하는 남성 노동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50대만 고려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표 4> 1880~1940년 50~59세 남성 노동의 직업분포(%)

직종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전문직	3.7	3.9	4.1	3.5 (53.2)	3.7 (42.2)	4.2	4.6 (36.0)
농민	45.0	41.9	38.7	32.2 (100.0)	28.7 (97.8)	23.5	18.3 (99.1)
관리직/자산소유사업	7.1	7.9	8.7	11.9 (77.3)	10.3 (67.5)	11.2	12.1 (58.7)
사무직	0.9	1.7	2.5	2.6 (3.4)	2.0 (15.4)	3.5	4.9 (2.8)
판매직	1.6	2.3	3.0	3.9 (23.3)	3.8 (27.7)	4.4	5.0 (18.0)
숙련공	14.5	14.7	14.8	14.4 (19.7)	16.1 (15.4)	17.4	18.6 (17.5)
조립공	8.9	8.5	8.0	10.0 (6.7)	12.7 (7.2)	13.1	13.4 (6.5)
서비스	1.8	2.3	2.8	3.8 (11.3)	4.6 (12.9)	5.7	6.7 (11.1)
농업노동자	5.1	5.1	5.1	7.3 (2.9)	6.2 (9.0)	5.1	3.9 (1.0)
미숙련노동자	11.4	11.8	12.2	10.4 (49.2)	12.0 (22.2)	12.3	12.5 (19.0)

주: 1880년 1900년, 1910년, 1920년, 1940년 인구센서스 마이크로 표본으로부터 계산하였음. 출간된 센서스와 마이크로 표본의 직업분류가 상이한 관계로 마이크로 표본이 존재하지 않는 1890년과 1930년의 수치는 내삽법을 통해 계산하였음. 괄호 안에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음.

<표 4>는 1880~1940년 동안 '유리한 직종'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80년 당시 이러한 직종은 50대 남성 노동자의 5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40년에는 35%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농업인구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50대 남성

노동자 중 농민의 비율은 1880년 45%에서 1940년 18%로 감소하였다. 전문직, 관리직, 자산소유사업가의 상대적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농업의 상대적인 축소를 상쇄하기에는 증가폭이 너무 작았다. 반면 '불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의 비율은 1880년의 25%에서 1940년 37%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불리한 직종'으로 분류된 각 개별 직업에 고용된 고령 남성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력의 상대적 크기는 산업화 시기에 걸쳐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기간 동안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각각의 직업군 내에서도 악화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도 은퇴시기에 대한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산업화 기간을 통해 감소하였다. <표 4>의 괄호 안에는 1910년, 1920년, 1940년에 대해 50대 남성 노동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sup>29)</sup> 이 결과는 고령 자영업자의 비율이 1910~40년 동안 모든 직종에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 비중의 상대적 감소는 특히 전문직, 관리자, 자산소유사업가, 미숙련노동자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컨대, 1910년에는 77%의 관리자 및 자산소유사업가와 절반에 가까운 단순노동자들이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러나 1940년에는 각각 59% 및 19%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었다.

더 나아가,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지만 각 직종의 피고용자 그룹 내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퇴직압력이 점차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래의 연구들에 의하면 연구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현대적 기업조직과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고용관계가 서서히 비인격화되었다(Chandler, 1977; Graebner, 1980; Jacoby, 1985).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제거했을 것"이며(Lauck and Sydenstricker, 1917: 163) 이에 따라 장기근속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연령 차별이나 노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Haber, 1983). 급속한 기술변화와 중등교육의 보급으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젊은 세대와 경쟁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산업화는 외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퇴출압력이 컸던 부문의 상대적인 확대를 가져왔고 내포적으로는 비농업 부문에 고용된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29) 1910년 센서스는 고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 최초의 조사자료이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산업화 시기의 미국 고령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필자는 고령 노동자들이 직면한 노동시장 퇴출압력이 직종마다 어떻게 달랐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퇴직확률의 직종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1900~10년 사이 농민의 퇴직률이 비농민에 비해 낮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Carter and Sutch, 1996a; Costa, 1995a). 그러나 보다 장기간을 고려한 결과 전통적인 견해가 지적하듯이 1880~1940년 사이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비농민의 퇴직률이 농민의 퇴직률보다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수정주의적인 연구 결과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20세기의 첫 10년 동안에만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1900~10년의 예외적인 패턴은 이 기간 동안 농업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민들의 조기퇴직을 자극한 데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세분화된 직업분류에 기초하여 직종간 퇴직확률을 비교한 결과 경제적 지위와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던 고령자들의 퇴직확률이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직업의 특성과 고용기회는 퇴직소득보다 더 중요한 퇴직의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이 논문은 고령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은 고용상의 어려움이 직업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분석하였다. 노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의 지표로는 청장년에 비교한 고령 노동자들의 장기실업 발생빈도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이 숙련공, 조립공, 판매원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보여 준다. 반면 고령의 농민, 전문직, 관리직 및 자산소유사업가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노동시장 여건이 호의적이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1900년에 연령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이 큰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는 이후 10년 사이 그 직업에서 퇴출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 논문의 결과는 산업화로 인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퇴출압력이 상대적으로 심했던 직종들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전체 50대 남성 노동자 가운데 숙련공, 조립공, 판매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0년의 25%에서 1940년의 37%로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농업, 전문직, 관리자 및 자산소유사업가 등 고령 남성의 노동시

장 여건이 양호했던 직종의 비중은 주로 농업의 쇠퇴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56%에서 35%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노령화에 대한 인식,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이 기간 동안 각 직종 내에서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Achenbaum, A. W. *Old Age in the New Lan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Armstrong, B. *Insuring the Essentials: Minimum Wage Plus Social Insurance-A Living Wage Program*. New York: Macmillan, 1932.
- Bancroft, G. *The American Labor Force: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i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8.
- Boskin, M. J.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Decisions." *Economic Inquiry* 15 (1977): 1-25.
- Carter, S. B., and R. Sutch. "Myth of the Industrial Scrap Heap: A Revisionist View of Turn-of-the-Century American Retire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 (1996a): 5-38.
- \_\_\_\_\_. "Fixing the Facts." *Historical Methods* 29 (1996b): 5-24.
- Chandler, L. V. *America's Great Depression, 1929-1944*. New York: Harper and Row, 1970.
- Chudacoff, H. P., and T. K. Hareven. "Family Transition into Old Age." In *Transition: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s*, edited by T. K. Hareven, pp. 217-243.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_\_\_\_\_. "From Empty Nest to Family Dissolution: Life Course Transition into Old Age." *Journal of Family History* 4 (1979): 69-83.
- Cole, T. R. *The Journey of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ondran, G. A., and E. Crimmins. "Mortality Differentials between Rural and Urban

- Areas of States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1890-190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6 (1980): 179-202.
- Costa, D. L. "Health, Weight, Wartime Stress, and Older Age Mortality: Evidence from Union Army Record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0 (1993): 424-449.
- \_\_\_\_\_. "Agricultural Decline and the Secular Rise in Male Retirement Rate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2: 540-552.
- \_\_\_\_\_. "Pensions and Retirement: Evidence from Union Army Vetera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995a): 367-397.
- \_\_\_\_\_. *The Evolution of Retire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Cowgill, D. O. "The Aging of Population and Societ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1974): 1-18.
- Durand, J. D. *Th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1890-1960*.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8.
- Engerman, S., and C. Goldin. "Seasonality in Nineteenth Century Labor Markets." In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edited by T. Weiss and D. Schaef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Epstein, A. *The Challenge of the Aged*. New York: The Vanguard Press, 1928.
- \_\_\_\_\_. *Insecurity: A Challenge to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1938.
- Fischer, D. H. *Growing Old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Fogel, R. W. "New Sources and New Techniques for the Study of Secular Trends in Nutritional Status, Health, Mortality, and Process of Aging." *Historical Methods* 26 (1993): 5-43.
- Glasson, W. H. *Federal Military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18.
- Goldin, C. "Family Strategies and the Family Econom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Role of Secondary Workers." In *Philadelphia: Work, Space, Family, and Group Exper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dited by T. Hershber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Graebner, W. *A History of Retiremen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n American Instit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Gratton, B. *Urban Elder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B. "The Poverty of Impoverishment Theory: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1890-195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 (1996): 39-61.
- Haber, C. *Beyond Sixty-Five: The Dilemma of Old Age in America's Pa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Haber, C., and B. Gratton. *Older Age and the Search for Security: An American Social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Haines, M. R. "Mortality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Estimates from New York and Pennsylvania Census Data, 1865 and 1900." *Demography* 14 (1977): 311-331.
- Hurd, M. D., and M. J. Boskin.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Retirement in the Early 1970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 (1984): 767-790.
- Jacoby, S. *Employing Bureau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Keyssar, A. *Out of Work: The First Century of Unemployment in Massachuset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Kuznets, S. *Seasonal Variations in Industry and Trade*.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33.
- Lebergott, S. *Manpower in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Record Since 1800*.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 Lauck, W. J., and R. Sydenstricker. *Conditions of Labor in American Industries: A Summarization of the Results of Recent Investigations*. New York: Funk & Wagnalls Company, 1917.
- Lee, C. "Long-Term Unemployment and Retirement in Early-Twentieth-Century America."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1998): 844-856.
- \_\_\_\_\_. "Farm Value and Retirement of Farm Owners in Early-Twentieth-Century America."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6 (1999): 387-408.
- \_\_\_\_\_. "Sectoral Shif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the United States, 1880-194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 (2002): 512-523.
- Lindert, P. H. "Long-Run Trends in American Farmland Values." *Agricultural History* 62 (1988): 45-85.
- Long, C. *The Labor Force Under Changing Income and Employmen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 Margo, R. A.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Americans in 1900: Further Result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0 (1993): 409-423.
- Modell, J., and Hareven, T. K. "Urbanization and the Malleable Household: Boarding and Lodging i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 (1973): 7-32.
- Moen, J. R. *Essays on the Labor Forc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he United States From 1860 Through 1950*.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7a.
- \_\_\_\_\_. "The Labor of Older Americans: Com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7 (1987b): 761-767.
- \_\_\_\_\_. "Rural Nonfarm Households: Leaving the Farm and the Retirement of Older Men, 1860-1980." *Social Science History* 18 (1994a): 55-75.
- \_\_\_\_\_. "The Unemployment and Retirement of Older Men." *Historical Methods* 27 (1994b): 40-46.
- Ransom, R. L. and R. Sutch. "The Labor of Older Americans: Retirement of Men On and Off the Job, 1870-1937."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 (1986): 1-30.
- \_\_\_\_\_. "Tontine Insurance and the Armstrong Commission: A Case of Stifled Innovation in the American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7 (1987): 379-390.
- \_\_\_\_\_. "The Trend in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en, 1870-1930: A Reply to Moe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9 (1989): 170-183.
- \_\_\_\_\_. "The Impact of Aging on the Employment of Men in American Working-Class Communitie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Aging in the Past*, edited by D. Kertzer, and P. Laslet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Ransom, R. L., Sutch, R., and S. Williamson. "Inventing Pensions: The Origins of the Company-Provided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1900-1940." In *Societal Impact of Aging: Historical Perspective*, edited by K. W. Schaie, and W. A. Achenbaum, pp.1-3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93.
- Ruggles, S., and M. Sobek.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Social History



Research Laboratory,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Slichter, S. H. *The Turnover of Factory Labor*.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19.

Smith, D. S. "Life Course, Norms, and the Family System of Older Americans in 1900." *Journal of Family History* 4 (1979): 285-298.

Squier, L. W. *Old Age Dependen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1912.

Viechnicki, P. "Regression Analysis of Linkage Biases in the Union Army Life-Cycle Datasets." Center for Population Economics Working Paper 2002-2. 2002.

Waler, H. T. "Height, Weight, and Mortality: The Norwegian Experience." *Acta Medica Scandinavica* [Suppl.] (1984): 679-56.

Weaver, C. L. "On the Lack of a Political Market for Compulsory Old-Age Insurance Prior to the Great Depress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0 (1983): 294-328.

〈부표 1〉 지역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900년과 1910년 사이 퇴직확률 결정요인

설명변수	뉴잉글랜드	중부 대서양	동부 중서부	서부 중서부
자영농민	NI	NI	NI	NI
전문직/자산소유사업	1.429	1.704	0.399***	0.463**
사무직	2.212*	1.487	1.038	1.356
숙련공	1.060	1.223	0.532***	0.492*
조립공	1.879	1.642	1.031	2.023
미숙련노동자	1.307	1.705**	1.270	0.962
농업노동자	4.054**	1.972	1.343	1.007
미분류	1.131	5.108***	1.256	3.905*
50~54세	NI	NI	NI	NI
55~59세	1.677	1.662**	1.522**	2.083**
60~64세	3.272***	2.929***	3.554***	2.673***
65세 이상	8.765***	4.779***	6.013***	4.927***
미국 출생자	0.664	1.022	0.768	1.263
주택소유자	0.466**	1.438*	0.986	1.160
저당주택소유자	0.607	1.182	0.882	1.326
하인 거주	0.786	0.793	0.860	0.560
하숙인 거주	1.187	1.063	1.679**	1.413
피부양자 1~3명	1.058	0.784	0.475**	0.499
피부양자 4명 이상	1.137	0.779	0.333***	0.339**
기혼	1.152	0.513**	0.960	1.427
문맹	7.499**	0.979	1.075	0.181**
도시 지역	0.676	1.086	0.838	1.127
6개월 이상 실업	1.124	2.084***	1.168	1.420
연금수혜터미	0.089***	0.508	0.513*	0.613
연금액 로그값	2.690***	1.673**	1.667***	1.233
낮은 BMI	0.590	1.269	1.410	2.261**
중간 BMI	NI	NI	NI	NI
높은 BMI	3.885**	1.454	0.731	1.607
BMI 미확인	0.755	0.955	0.710**	0.532**
관측치수:	332	776	1290	450
-2 Log L without covariates:	432.1	1014.8	1735.6	612.3
-2 Log L with covariates:	370.9	918.0	1511.4	549.5
Chi-square for covariates:	45.9	81.6	178.0	51.0
	(p=0.009)	(p=0.000)	(p=0.000)	(p=0.002)

주: 자료의 출처는 1900년과 1910년 인구센서스에 연결되었으며 1900년에 50세 이상이었던 3,100명의 복군 퇴역군인들의 표본임. 유의수준: \*(10%), \*\*(5%), \*(10%).

〈부표 2〉 55세 이상 남성노동자의 직종별 비준 및 평균소득

직업	1900		1910		CPROP55	CREL55	INCOME
	PROP55	REL55	PROP55	REL55			
전문직/자산소유사업	0.032	0.271	0.024	0.246	-0.281	-0.092	43.9
농민							
동북부	0.077	0.793	0.062	0.972	-0.228	0.227	14.0
중서부	0.154	0.466	0.115	0.459	-0.297	-0.016	14.0
남부	0.155	0.404	0.141	0.413	-0.094	0.023	14.0
서부	0.016	0.452	0.020	0.465	0.222	0.030	14.0
관리직	0.058	0.293	0.085	0.297	0.373	0.012	41.0
사무직	0.021	0.165	0.023	0.148	0.078	-0.100	25.5
판매직	0.115	0.234	0.110	0.215	-0.047	-0.081	27.9
숙련공							
건설	0.053	0.308	0.056	0.320	0.069	0.039	24.9
금속	0.015	0.235	0.011	0.200	-0.267	-0.147	27.1
기계	0.013	0.161	0.012	0.112	-0.082	-0.301	33.7
제화	0.016	0.458	0.009	0.314	-0.590	-0.314	23.5
기타	0.020	0.138	0.026	0.173	0.259	0.252	29.5
조립공							
직물	0.003	0.153	0.003	0.138	0.089	-0.098	20.8
운송	0.011	0.110	0.015	0.162	0.295	0.478	26.8
금속 및 광업	0.013	0.136	0.012	0.103	-0.103	-0.242	24.6
기타	0.028	0.132	0.039	0.137	0.309	0.045	23.6
서비스							
가내 서비스	0.006	0.432	0.007	0.211	0.106	-0.511	5.9
기타 서비스	0.020	0.185	0.027	0.250	0.313	0.355	19.1
농업노동자							
동북부	0.013	0.222	0.023	0.366	0.565	0.645	7.5
중서부	0.017	0.106	0.036	0.213	0.686	1.010	6.8
남부	0.040	0.186	0.050	0.239	0.209	0.283	6.7
서부	0.006	0.180	0.010	0.213	0.618	0.181	7.8
미숙련노동자							
동북부	0.034	0.193	0.030	0.197	-0.141	0.020	19.8
중서부	0.030	0.175	0.036	0.237	0.165	0.358	19.7
남부	0.026	0.205	0.018	0.169	-0.395	-0.177	19.5
서부	0.007	0.176	0.007	0.142	-0.036	-0.192	19.4

주: 1900년과 1910년 인구센서스 마이크로 표본으로부터 계산함.

abstract

---

##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of Older Males in the United States: 1880~1940

Chulhee Lee

This article examines the employment status of older male workers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focusing on the questions of how the extent of pressure toward retirement varied across different occupations, and how it changed over time. A comparison of hazard of retirement across occupations shows that men who had better occupations in terms of economic status and work conditions were less likely to retire than were those with poorer jobs. This result tends to reject the recent view that retirement was more voluntary than forced as early as a century ago. The difficulty faced by olde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s measured by the relative incidence of long-term unemployment, was relatively severe among craftsmen, operatives, and salesmen. In contrast, aged farmers, professionals, managers, and proprietors appear to have fared well in the labor market. The pattern of shift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that occurred between 1880 and 1940 suggests that industrialization had brought a growth of the sectors in which the pressure toward departure from employment at older ages was relatively strong.

Key words: old labor, retirement, industrial structure, long-term unemployment